

장조혈(腸造血)과 말초 혈액공간 이론

모리시타 케이이치 박사(Morishita Keiichi · 국제자연의학회장)
소개 : 기준성 회장(동의부항대표)



▲ 강연중인 모리시타 박사

한국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리시타입니다. 훌륭한 심포지엄에 초청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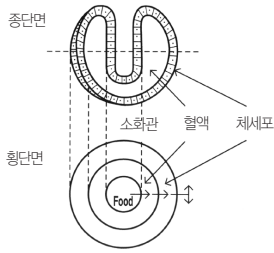
주최자이신 미내사가 저에게 주신 테마는 장조혈과 말초혈액공간 이론이었기 때문에 포인트를 거기에 맞춰 슬라이드를 활용하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조혈과 말초혈액공간 이론이라는 것은 저의 '자연의학의 기초' 이론을 구성하는 큰 기둥이 됩니다. 이 이론을 중심으로 저희들은 임상 실험을 전개해 왔습니다. 동양에는 옛부터 먹은 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제가 행해온 연구가 그 말을 분명한 사실로 뒷받침해 주는 연구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식이 피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그 사이에 장조혈 과정이 없으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오늘 슬라이드를 통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라는 것, 뇌, 심장, 폐

등 모든 조직세포가 피 세포로부터 생성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구분화, 피와 피의 세포가 모여져서 체세포로 발전되어 가는 것을 분화라고 하는데요, 그를 통해서 우리 세포가 만들어져 갑니다. 먹은 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20년간 대학 연구소에서 매일 숙식을 하며 20년동안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연구 과정에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일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장조혈설이라는 것은 소화된 음식물이 장벽에서 혈액세포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지, 먹고 소화된 음식물이 혈액세포의 적혈구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혈구를 생성해내는 모세포라는 것은 장의 용모 내강에만 존재합니다. 장의 용모에서 혈액이 형성된다는 것은 이미 명명백백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덧붙여 우리 몸속 백혈구라는 것은 적혈구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관찰한 것은 개구리 세포였는데 개구리 적혈구를 관찰했습니다. 그 필름을 만드는 것에도 성공했는데 그 상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슬라이드 1〉

우리 몸은 공기가 빠진 구(球)의 한 부분을 구부러트린 상태의 모양을 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식물은 반대로 몸의 일부가 튀어나와서 뿌리로써 땅에 끼인 것 같은 상태죠. 동물의 몸은 이런 식으로 구부러져 있고 구부러져 있는 부분이 소화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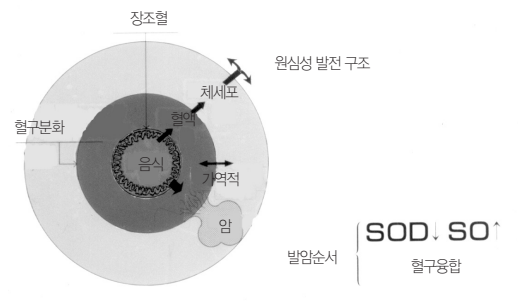


▲ 슬라이드 1-동물기본형의 종단면과 횡단면

소화관이라고 해서 특별한 조직은 아니죠. 신체의 뼈 조직과 같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옆으로 잘라서 그것을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삼층구조가 됩니다. 가운데가 소화관이고 그 바깥부분에 혈액의 세계가 있고 그 바깥부분에 체세포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세가지 구역으로 형성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음식물(食)의 세계와 혈액의 세계, 체세포의 세계에 어떤 구분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가지 영역은 연속되어 있습니다. 자연계의 모든 현상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딱 잘라버린 듯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선가는 꼭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먹은 것이 혈액세포로 바뀌어지고 혈액세포가 체세포로 바뀌어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일관된 연속성이 있고 게다가 중심부에서 바깥부분을 향해서 원심성으로 발전되어 나갑니다. 연계성을 갖고 중심으로부터 바깥부분을 향해서 발전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걸 먼저 확실한 전제로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슬라이드 2〉

아까 보여드린 삼층구조를 확대시키면 슬라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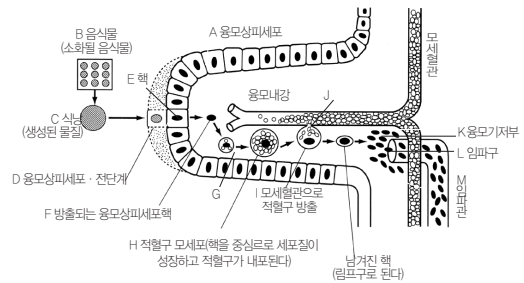


▲ 슬라이드 2-동물체와 인체의 삼층구조

2처럼 되는데요. 소화관내 식물의 세계, 그 바깥부분의 혈액 세계, 그리고 그 바깥세상이 체세포 세계죠. 원심성적으로 발전해 나가죠.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냥 원심성으로 발전되어 가는 게 아니라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마지막 부분에서 말초혈액공간 이론을 통해 구심성으로 수렴됩니다. 수명이 다 된 체세포는 말초혈액공간에서 처리되어 그리고 장으로 돌아가는 즉 원심성으로 발전하는 동시에 구심성으로 수렴해가는 것이 인체구조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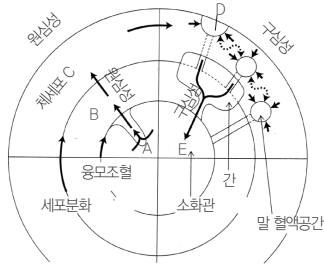
〈슬라이드 3〉

장조혈의 모형을 도식화한 것인데요. A가 용모의 상피세포고, B가 소화된 음식물입니다. C에서 소화됩니다. 그것이 장의 용모 상피세포에



▲ 슬라이드3-장조혈 모형도 (모리시타 자연의학 이론)

첨가되고(D) 그 세포안에 핵이 형성되고(E) 그 핵이 용모 내강에 배출(F)됩니다. 그리고 주위에 세포실이 붙여지고(G) 적혈구 모세포가 형성됩니다(H). 이 적혈구 모세포 안에 내포됩니다. 덮혀졌다 해도 되고 임신한 상태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용모 내강에 모세포가 붙어 있다가(I) 모세포 안의 적혈구가 모세혈관 안으로 배출됩니다(J). 남겨진 핵은 용모 기저부에 모이게 되고(K) 임파구로 되어 한바퀴 돌게 되죠(L). 그리고 임파관을 통해서 임파의 그 흐름을 타서 인체의 중심부분으로 운반(M)되는 식이 됩니다. 우리들 장 안의 어떤 움직임을 현대의학에서는 아직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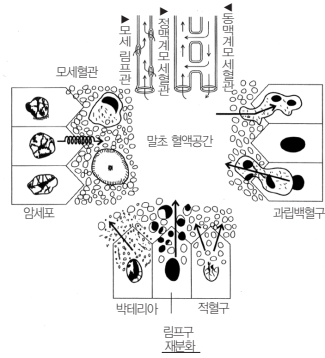
▲ 슬라이드4-응모조혈과 말 혈액공간

확실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슬라이드 4〉를 보십시오.

응모(A)를 통해서 음식물이 혈액세포(B), 체세포(C)로 발전되어 나가고 그 체세포는 노화되면 수명이 다하겠죠. 그러면 이 말초혈액공간(D) 속에 버려지고 이 장소의 혈액의 작용에 따라서 해체되고 재분화 됩니다. 일부는 또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간장의 조직을 통해서 장(E)으로 배출 반복됩니다. 구심성의 수렴작용이 동시에 작용되는 것이죠. 음식물이 중심이 되서 원심성으로 발전하는 동시에 구심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현상을 지금의 서양의학에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선진국일수록 병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비가 증대되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예산의 반 이상이 의료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같은게 없어도 의료비 때문에 국가의 재정이 고갈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한 상태는 지금의 서양의학에 근본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점을 한국의 저명한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까만 확실하게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슬라이드 5〉 이것은 말초혈액공간의 도식입니다. 가운데가 말초혈액공간, 윗 부분이 동맥, 정맥계의 모세혈관입니다. 그 왼쪽은 모세림프관입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모세혈관의 그 끝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좀더 문제제기 한다면 모세혈관의 중간은 개방되어 있는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마저도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공간 주위를 둘러싼 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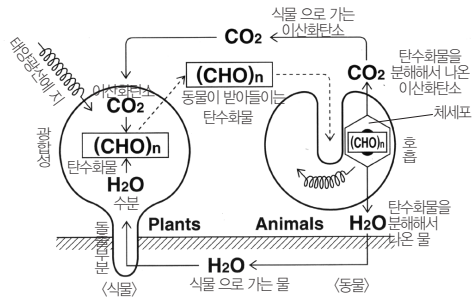


▲ 슬라이드5-말 혈액공간모형도(末梢血液空間模型圖)

가지 세포, 여기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지 않지요. 백혈구가 체세포로 바뀝니다. 또는 조건에 따라서 체세포가 백혈구로 변하든지, 또는 적혈구로 변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단식을 할 경우에 그런 병적인 세포가 점점 더 적혈구로 되돌아가야워어 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림프관으로 대체되는 것도 있고 박테리아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병원균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체내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일부는 바깥에서 들어온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대개의 경우 체내로부터 박테리아가 자연 발생하는 겁니다.

좌측은 암세포인데요. 암세포는 강력한 유도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장소에서 적혈구 또는 백혈구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장소(좌측 암세포와 말초혈액공간이 인접한 부분)에서 암세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암세포 밑에 흘러온 침체되어 있는 적혈구 또는 백혈구가 암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암세포의 영향을 받아서 혈구가(적혈구 또는 백혈구) 암세포로 바뀌어지는 과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 말초혈액공간이라는 것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까만 이 장소에서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부스러기(fragment), 필요없는 것이라는 뜻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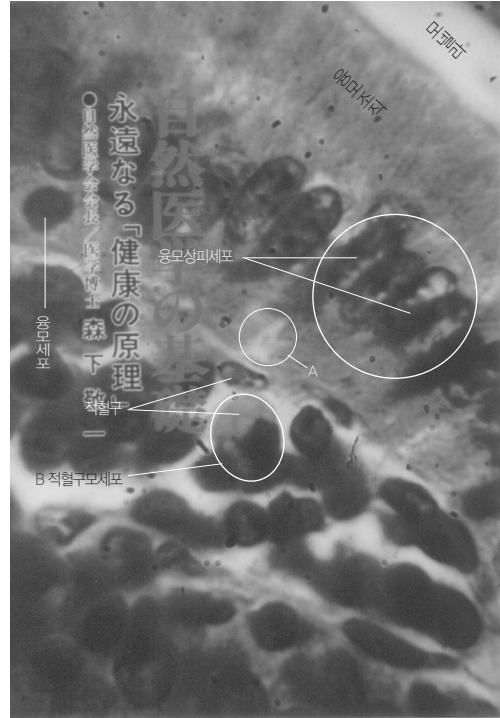
▲ 슬라이드 6-식물과 동물의 상보관계

소외되는 존재입니다만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계속 관찰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정체가 명확해졌는데 그 사진을 보여 드리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동물은 구부러진 상태로 오목하고, 식물은 이 부분이 돌출하게 됩니다. <슬라이드 6> 그래서 땅 속에 묻혀 뿌리가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식물은 땅에서 수분을 빨아들여 대기중에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탄수화물(CHO)n을 만듭니다. 이것을 동물은 음식물로서 받아 들입니다. 그래서 이 체세포(특히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그 에너지에 의해 동물체는 생명원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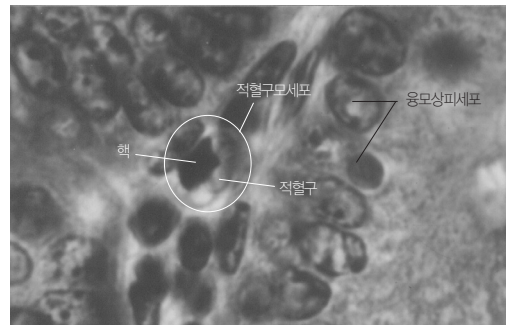
이 탄수화물은 또다시 탄산가스와 물로 해체되어서 식물으로 가게 됩니다. 그 식물은 다시 탄수화물을 만듭니다. 이때의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이지요.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겁니다. 식물과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가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1980년, 즉 20년전에 쓴 책입니다. <슬라이드 7> 표지의 사진은 대학의 연구실에서 찍은 사진을 썼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처음으로 찍은 적혈구 모세포 칼라 사진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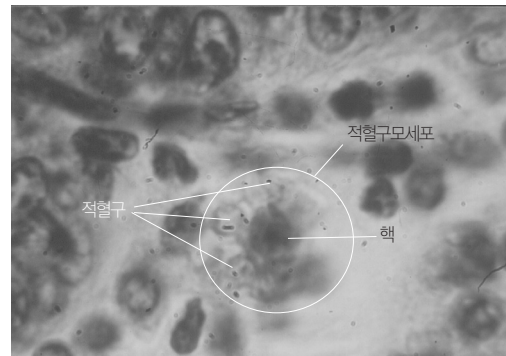
이것이 적혈구 모세포입니다(B). 그 안에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적혈구입니다. 하얗게 동그랗게 약간 좀 타원이죠. 동그란 것이 적혈구인데 이 공간(A)에서 이것이 나왔습니다. 우측 상단에 가지런히 배열된 까만 타원형들이 용모세포입니다. 이것이 적혈구



▲ 슬라이드7-'자연의학의 기' 표지



▲ 슬라이드8



▲ 슬라이드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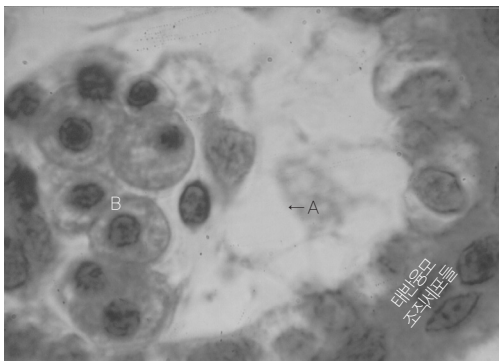
▲ 슬라이드 10-이사진의 대부분이 적혈구 모세포인데, A에 핀트를 맞추어 찍으면 B부분은 그냥 빨갛게 보인다. (용모 내강에 존재하는 적혈구 모세포의 사진)

모세포(B)입니다. 이 모세포는 이곳 외에 우리 신체의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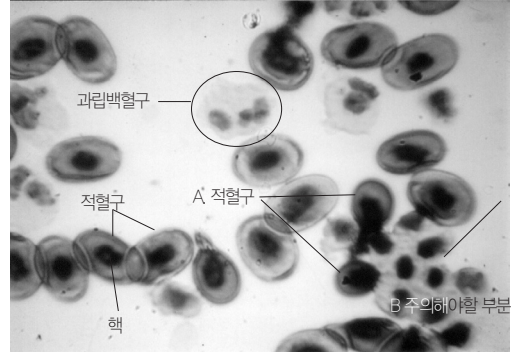
다음 슬라이드 8, 9를 보십시오. 이것이 용모, 이것이 적혈구, 이것은 적혈구 모세포, 이것은 적혈구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10> 부탁드립니다.

이것이(B) 적혈구 모세포, A에 핀트를 맞추면 현재 B부분처럼 좀 더 선명하게 적혈구 모세포인 것을 알 수 있다. B부분은 그냥 빨갛게 나오죠. (현재는 A부분이 빨갛게 되어있음) 이것도(A) 적혈구 모세포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용모 내강에 적혈구 모세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11> 이것은 용모가 태반용모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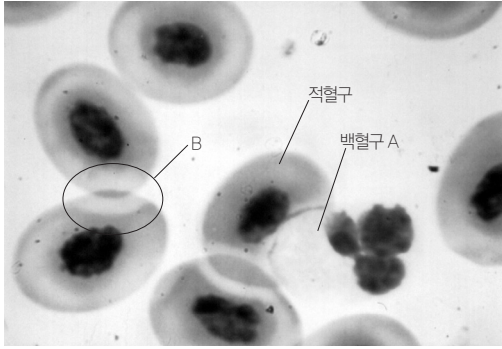
▲ 슬라이드 11-A부분에 있던 적혈구세포가 B부분으로 한꺼번에 이동하는 모습. B부분의 모세포 안에 적혈구가 확실히 보인다.



▲ 슬라이드 12-A부분에 있는 두개의 적혈구는 핵만 남고 세포질은 모두 유출되고 있다. B부분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 세포질, 세포질 속에 핵이 형성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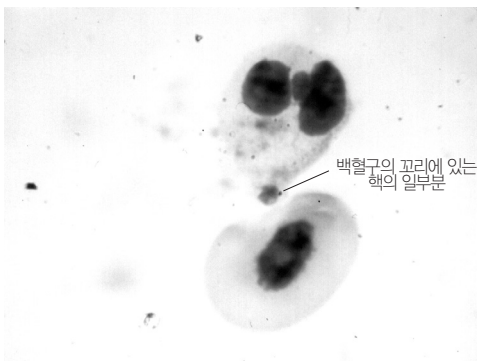
태반용모조직 세포입니다(우측하단). 여기 있는 적혈구 모세포(B)는 이쪽 공간(A)에 있었던 것이 한꺼번에 이동해 간 현상입니다. 이 안에(B) 적혈구가 확실히 보이죠. B부분 전체가 적혈구 모세포입니다. 이것을 보아 태반용모 상피세포가 적혈구 모세포로 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12> 이것은 관점을 약간 바꾼 개구리의 적혈구인데 적혈구의 크기가 좀 다릅니다. 굉장히 관찰하기 쉽습니다. 보통 동물의 수 배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을 가지고 있죠. 좌측의 이것은 적혈구입니다. 위의 하얀 것이 과립 백혈구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슬라이드 12>에서 주의를 하셔야 할 것은 이 오른쪽 아랫 부분입니다(B). 여기 두 개의 적혈구(A)가 있습니다만, 세포질이 바깥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그 두 개의 적혈구는 핵만 있고 세포질은 없습니다. 그 세포질은 오른쪽 아래 흰 부분(B)으로 유출되었습니다. 유출된 세포질에서는 이미 핵들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머지는 연속 사진으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하나의 적혈구가 4개의 림프구(유출된 세포질의 검은 점들)로 바뀌었습니다. 대체로 두 개의 적혈구(A) 세포질이 이런식(B)으로 바뀝니다. 과립 백혈구가 이렇게 나뉘진 듯한 모습이죠.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는 과립 백혈구가 이런 형태로 됩니다만, 아래는 이 적혈구(A)에서부터 세포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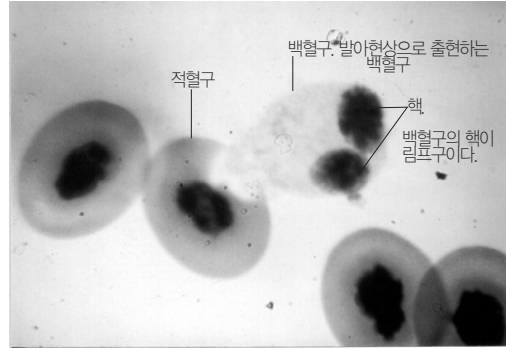


▲ 슬라이드 13-적혈구에서 발아되는 백혈구. 적혈구 표면으로 부터 분화되어 나오는 백혈구. A에서 적혈구와 백혈구가 겹쳐진 것이라면 B처럼 겹친것이 보여야 하지만 A에서는 위 적혈구 표면이 볼어나 돌이 커져 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밖으로 유출된 결과입니다. 즉 핵이라는 것도 고정적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 적혈구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포 이론을 절대시 하는 사고방식이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A) 적혈구의 표면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13> 점점 볼어나듯이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미 핵이 분할되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겹쳐지는게 아닙니다. 겹쳐지면 백혈구 이 얇기 때문에 겹쳐진 것은 반대편에 적혈구가 보여야 됩니다. B부분처럼 투명하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겹쳐진 것이 아닙니다. <슬라이드 14>를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명확하게 핵의 표면으로부터 발아된 증거로써 태어난 백혈구의 꼬리에 핵의 일부분이 붙어있죠. 이렇게 전형적인 적혈구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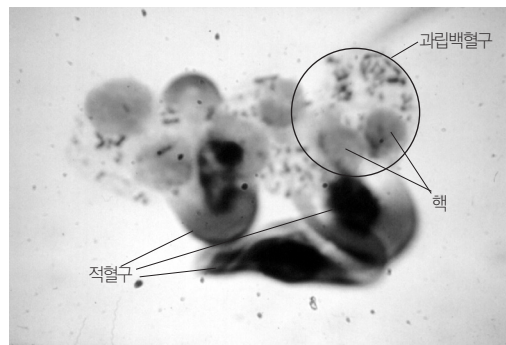
▲ 슬라이드 14-아래 적혈구로부터 열매맺듯이 발아하는 백혈구의 전형



▲ 슬라이드 15-적혈구에서 발아한 백혈구의 모습 그 백혈구의 핵이 림프구이다. 백혈구 내에 있을때는 핵이지만 나오면 림프구가 되므로 그 둘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옳바르지 다.

백혈구가 열매가 맺히는 듯이 발화 현상으로 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 드린 사진은 모두 1957~8년 정도에 찍은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이미 일본의 학회에서도 발표를 거친 것입니다.

슬라이드 15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전형적인 과립 백혈구죠. 겹쳐진 것이 아닙니다. 발아 현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혈구와 백혈구라고 하는 것은 현대 의학에서 다른 세포, 그러니까 기반이 틀리다는 식으로 정립하고 있습니다만 백혈구는 적혈구의 세포질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핵이 사실은 림프구입니다. 이것이 (백혈구의 핵) 분열되면 하나하나의 림프구가 됩니다. 과립 백혈구의 핵이 곧 림프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의 체제(백혈구 체제)속에 있으면 핵으로써 남게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적혈구와 백혈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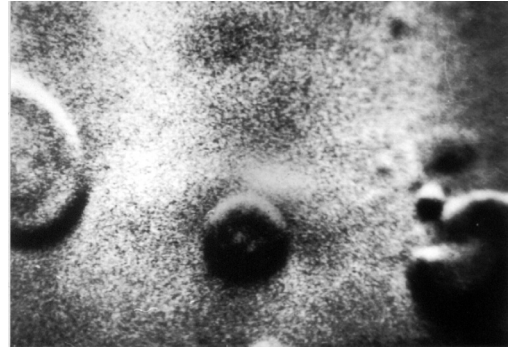
▲ 슬라이드 16

구별한다 또는 림프구와 핵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올바른게 아니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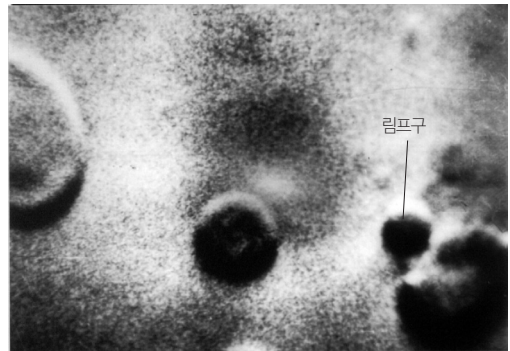
〈슬라이드 16〉 적혈구가 세 개죠(검은 부분이 세포이다). 물리적으로 힘을 가해서 내용물을 밖으로 내보낸 것입니다.(적혈구를 유리판으로 눌러 터트렸음) 굉장히 어려운 실험이라 몇백번이나 되풀이한 과정을 거쳐 겨우 우리가 원하던 그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적혈구는 막만 남게되고 내용물은 밖으로 나와 버렸습니다. 밖으로 나간 적혈구의 내용물은 과립 백혈구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이 두 개 있죠. 그리고 과립이 존재합니다.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백혈구란 적혈구의 세포질 그 자체라는 식으로 생각해주십시오.

〈슬라이드 17〉 앞으로 소개해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1958년에 영화화하는 것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 필름을 스틸화해서 가져왔습니다. 양 에 두 원형 물질이 적혈구입니다. 가운데 있는게 림프구입니다. 그리고 이 림프구는 오른쪽의 적혈구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놀라서 사진을 찍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슬라이드 18〉 오른쪽 적혈구에서 또하나 림프구가 출현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슬라이드 19〉 이것이 그거죠. 〈슬라이드 20〉 새로 분화된 림프구가 점점 커졌죠. 따로 떨어져 나온 것과 크기가 거의 비슷해 있습니다. 영화로 보자면 굉장히 잘 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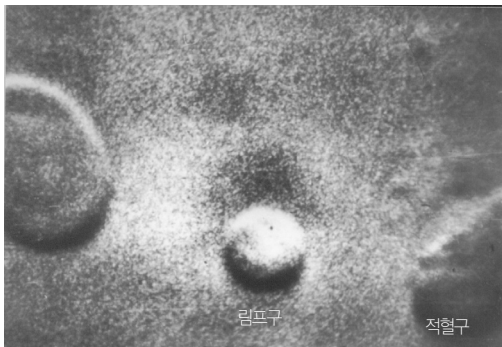
▲ 슬라이드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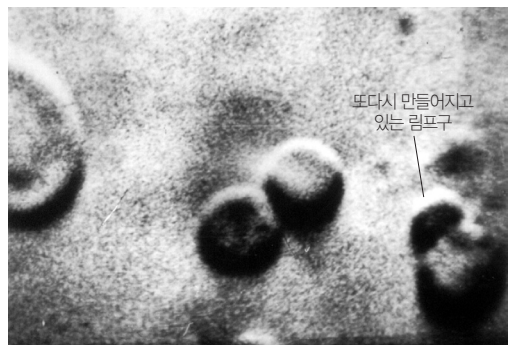
▲ 슬라이드 19



▲ 슬라이드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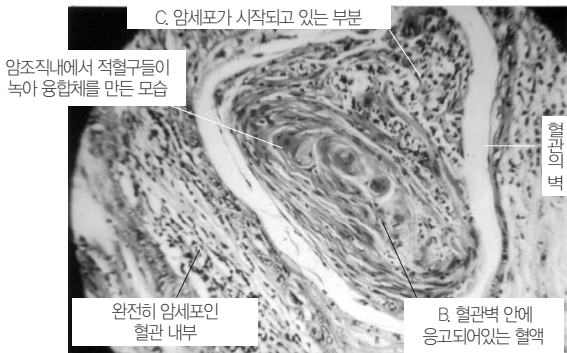


▲ 슬라이드 17



▲ 슬라이드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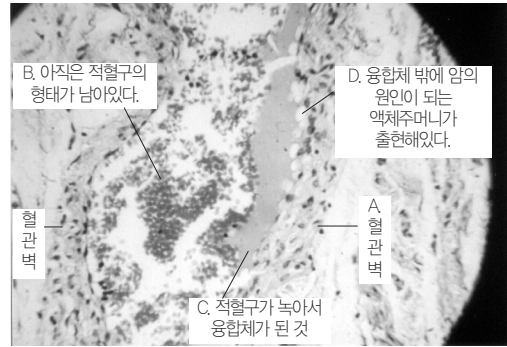
있습니다만, 이 시기에서부터 좌측의 림프구는 다리를 내어가지고 상하 좌우로 움직여 면밀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과 똑같은 림프구가 이렇게 우측 적혈구 위에 만들어졌죠. 이것은 좌측 림프구 쪽으로 붙어져 옵니다. 점점 중앙으로 갔죠<슬라이드 21>. 오른쪽 끝을 보면 또하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적혈구에서 네 개의 림프구로 해체됩니다. <슬라이드 22> 이것은 암세포입니다. 그리고 이것(A)이 혈관의



▲ 슬라이드22

벽이죠. 혈관을 위에서부터 단면으로 혈관을 동그랗게 자른 것을 옆에서 본 것입니다. 이것(B)이 혈액입니다. 하얗게 굵은 이것이 혈관의 벽이고 안에 있는 것이 혈액입니다. 혈액이 응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이(C) 암세포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죠. 혈관벽 외부는 완전히 암세포입니다. 피가 암 조직내에서는 더러워져서 적혈구(A)가 녹아서 합쳐져 융합체(D)를 만듭니다. 그래서有一部分이 이미 암세포화 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적혈구가 암세포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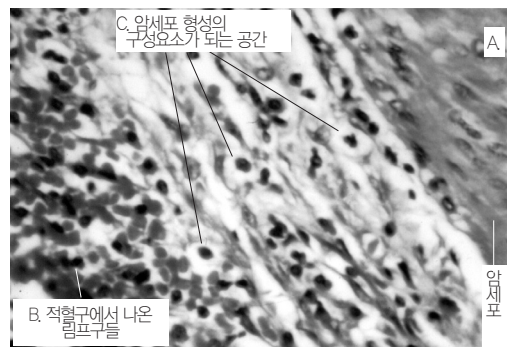
<슬라이드 23>은 지금 보여드린 것과 반대로 혈관을 세로로 잘라서 옆에서 본 것입니다. 이것이(A) 혈관의 벽입니다. 세로로 되어 있죠. B부분에 적혈구의 구조가 남아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융합체가(C) 만들어졌습니다. 적혈구가 길게 녹아서 만들어진 벨트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은 외부에 있는 암세포입니다. 암세포와 적혈구의 융합한 덩어리(벨트)상으로 되어 있는 그



▲ 슬라이드23

경계선에 공간(D)이라고나 할까요. 액체가 꼭 차 있는 공간, 액포라고나 할까요. 그것이 가득차 있습니다. 이 안에 암의 원인이 되는 세포 구성요소가 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액포 주위는 모두 암세포입니다. 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현대의학은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인식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암 대책은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세계의 현상을 보더라도 아직도 이것이 정말 진리다라는 새로운 견해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잘 보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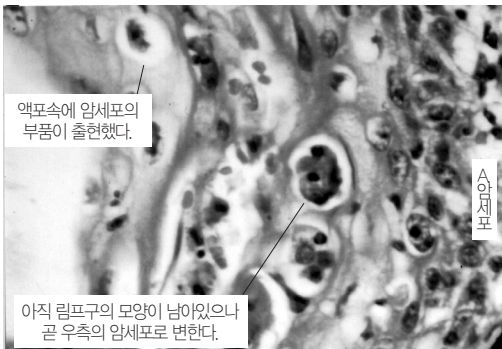
다음 <슬라이드 24>, 이것은 조금 더 확대된 것입니다. 우측 상단 바깥 에(A부위) 있는 것이 암세포고 왼쪽 하단의 이것은 적혈구에서 나온 림프구(B부위)입니다. 까맣고 동그란 것이 림프구이고 빨간 것이 적혈구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공간(C)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혈액의 공간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암세포의 원형이 되는 것이



▲ 슬라이드24

출현하게 됩니다. 암세포 형성의 구성요소죠. 그리고 오른쪽의 암세포와 똑같은 것이 됩니다. 이것은 곧 오른쪽 암세포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암 조직은 증식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암세포가 분열해서 증식해 나간다고 보고 있지만 그런 현상은 거의 없습니다. 증식되는 것은 특별한 세포, 예를 들어 훈련 받은 그런 특별한 세포입니다. 오늘 수술 받은 암환자의 암조직을 검출하여 현미경을 통해 보면 암세포의 분열이라는 현상은 아마 절대적으로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암세포의 분열은 없습니다. 암세포는 이와 같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증식해 나가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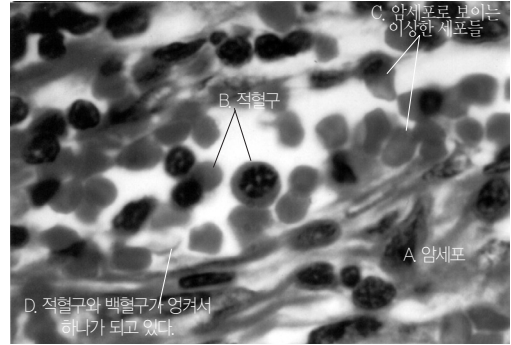
〈슬라이드 25가 그것입니다. 이런식으로 백혈구내에 이것을 보면 적혈구, 림프구의 모양이 남아 있죠. 우측의 세포들은 암세포입니다. 아까도



▲ 슬라이드 25

말씀드렸죠. 이것과 같은 세포로 바뀌어 나갑니다. 여기에도 보이지죠. 액포속에 암세포를 구성하는 일종의 부품이 출현을 해서 그 부품들이 연결되어 완벽한 암세포로 발전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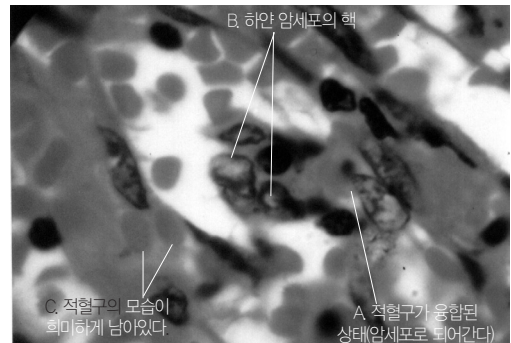
〈슬라이드 26〉은 조금 더 그것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 에 있는 것(A)은 이미 암세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B)이 적혈구. 그리고 약간 이상한 암세포로 보이는 듯한 세포가(C) 여기 많이 나와있죠. 적혈구 또는 림프구라고 불리고 있는 세포와 암세포와의 사이에 어떤 경계선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적혈구는 적혈구, 암세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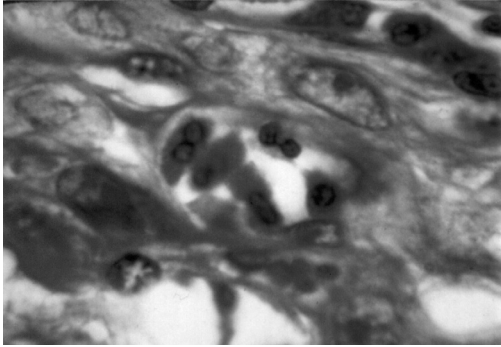
▲ 슬라이드 26

암세포라는 식으로 분리되어 증식해 나간다는 그러한 사고방식은 실제적인 현상으로 보아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좌측 하단에는 적혈구와 백혈구가 하나가 되어 복잡하게 엉켜 있습니다.(D)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암세포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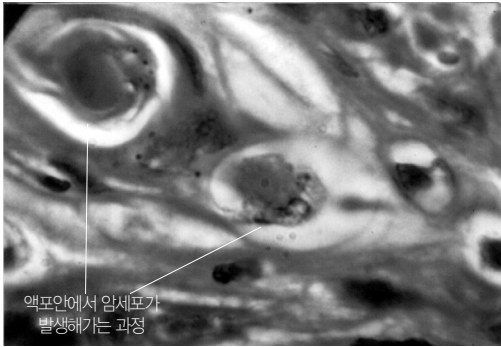
〈슬라이드 27〉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A) 적혈구가 융합된 상태입니다. 림프구 같은 것도 있고 그러나 이 하얀 핵(B)은 암세포의 핵입니다. 이것이 또한 덩어리가 되어 암세포화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C)도 적혈구가 융합된 것입니다. 약간 희미하지만 적혈구의 모습을 남기고 있죠. 이 도 마찬가지입니다. 적혈구가 녹아서 그 안에서 암세포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면 암 대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암 대책이 지체되고 약간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실에 눈을 감고 무시해버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 슬라이드 27



▲ 슬라이드 28



▲ 슬라이드 29



▲ 슬라이드 30



▲ 슬라이드 31

〈슬라이드 28〉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이런식으로(중앙에 희고 검은 것이 뭉친 부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 이것이 하나의 세포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문제입니다.

〈슬라이드 29〉도 마찬가지입니다. 액포 안에 암세포가 발생해나가는 과정을 잘 보고 있으면 누구라도 알 수가 있죠. 우리들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세포의 핵이 되는 DNA를 포함한 원기가, 부품이 액포안에 만들어져서 그 외의 부품과 연결되어 암세포화 되어간다는 것들을 이 사진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30〉도 마찬가지죠. 아직 헤모글로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암세포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암세포의 핵입니다.(A) 그러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질 속에는 아직 헤모글로빈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므로 혈구와 암세포를 구분해선 안됩니다. 구분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암 대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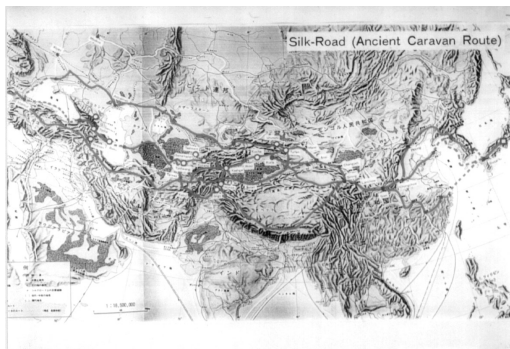
만들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31〉

이야기를 원점으로 돌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과거 25년간 40여차 에 걸쳐서 세계를 돌아 봤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장수하는 나라들을 보면 이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코카서스<좌측 상단> 산맥입니다. 그 남 에 그루지야, 알메니아, 아제르바이잔드 등의 장수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파미르 고원입니다. 그 서쪽 경계선에도 페르가나 장수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미르 고원의 동쪽 카슈바르, 아쿠스, 쿠짜, 코르라, 토르반 그리고 이것은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 불리고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텐산 산맥입니다. 이것이 쿤룬 산맥이구요. 타클라마칸 사막에 따라서 세계적인 장수 지역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모리시타 조사단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장수문제가 주제는 아니지만 나중에 데이터를 하나만 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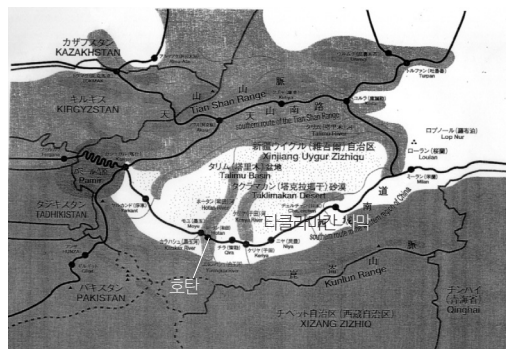
드리겠습니다. 호탄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세계적인 장수지역에서부터 여러가지 자료를 일본으로 가져가 거기에서 생명 에너지원, 기능치(氣能値) 지수를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북위 40도 선(코카서스-파미르 고원-텐산 산맥을 잇는 선)에서 ±5도 정도의 선에 따라서 세계의 장수 지역은 존재합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실크로드 장수 지역이라고 명명 했습니다. 이곳은 물론 인종, 민족, 종교, 생활습관 등이 다릅니다만 단 한가지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식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코카서스, 파미르 고원도 지역은 다르지만 모두가 같은 주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만드는 방법, 원료들이 똑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20수년간 조사한 바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슬라이드 32〉는 실크로드 장수 지역이죠. 빨간 선(검게 보이는 선)으로 되어 있는게 실크로드입니다.



▲ 슬라이드 32

그리고 약간 두꺼운 동그라미가 붙어 있는 곳(검게 보이는 선을 따라 있다), 그곳들이 장수촌이 있는



▲ 슬라이드 33

곳인데, 저희들은 20수년에 걸쳐서 현지 답사를 하여 지도를 만들어 본 것입니다.

〈슬라이드 33〉의 이곳은 타클라마칸 사막이구요. 텐산 산맥, 쿤룬 산맥, 다음에 보시는 것이 이 호탄이라고 하는 장수촌에서 가지고 온 물, 소금 그리고 난이라고 불리는 음식물입니다. 그것의 생명 에너지를 측정한 결과를 다음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파미르 고원이죠.

다음 페이지의 〈슬라이드 34〉는 각 지역의 음용수를 분석한 것입니다. 물 뿐만 아니라 음식물도 여러 가지 현지에서 가져와서 39개 항목, 여기에는 20개 항목밖에 없습니까만 39개 항목에 걸쳐서 모두 분석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 장수 원소라고 하는게 존재하는게 아닌가 해서입니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대표적인 것들이죠. 극히 일부뿐입니다만 공통되는 장수 원소라고 불리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파키스탄 훈자)은 철분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밑줄 그어져 있는 것을 보면 모두 제각각이고 공통된 장수 원소는 없다는 것을 저희들은 발견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장수를 가능하게 하는 원인은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일어, 그 원소 분석과 병행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물체에서 나오는 기, 에너지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미내사 2회 심포지엄 때도 일본에서 에모토 마사루 씨가 와서 MRA라는 기계를 소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기계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른 기계입니다만, 메카니즘은 완전히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가지고 와서 그 기의 측정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에모토씨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에 착수했습니다. 아마 11년전인가요. 그때부터 해왔습니다. 바로 그 뒤에 저희들도 약 10년전부터 기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물체에 대해 측정을 해봤습니다. 특히 음식물에 중점을 뒤서 측정을 했습니다.

〈슬라이드 35〉의 하얀 막대가 호탄 지역에서

슬라이드 34-각지역의 음료수의 미량성분 분석치(모리시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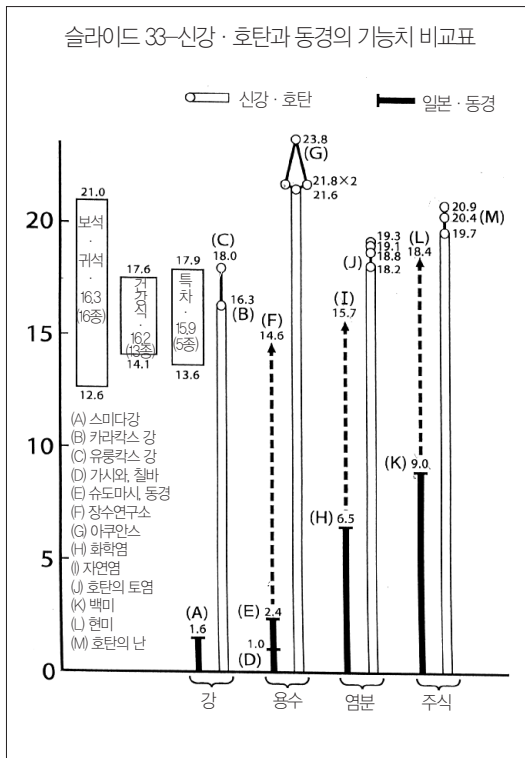
영역	동경(85)		신강(84)		조지아(84)		파키스탄(82)
	수도물	자연수	KAXGAR	TURPAN	SUVANESTI	SUKHUMI	HUNZA
칼슘	15.5	26.7	95.5	20.1	38.5	136.0	3.78
인	0.029	N.D.	N.D.	N.D.	N.D.	N.D.	0.888
마그네슘	2.41	7.89	54.5	5.06	4.16	78.2	2.44
칼륨	2.08	5.96	16.4	0.973	0.167	25.4	9.01
나트륨	11.4	31.2	116.0	29.0	3.27	372.0	2.25
셀레늄	N.D.	0.188	N.D.	N.D.	N.D.	197	0.291
게르마늄	N.D.	0.376	0.049	0.02	4.11	3.58	N.D.
실리콘	5.53	68.0	6.92	8.56	5.05	6.07	12.4
아연	0.082	0.015	N.D.	N.D.	N.D.	0.131	0.086
망간	0.009	0.045	0.002	N.D.	N.D.	0.840	0.132
크롬	0.302	0.015	0.013	0.013	N.D.	0.016	0.023
철	0.131	0.009	0.024	0.01	N.D.	0.666	7.32
구리	0.032	0.012	0.011	0.009	0.011	0.031	0.020
코발트	0.014	0.005	N.D.	N.D.	N.D.	0.012	0.016
니켈	N.D.	0.004	N.D.	N.D.	0.008	0.030	0.004
몰리브덴	N.D.	N.D.	0.019	0.007	0.001	0.059	0.013
수은	N.D.	N.D.	N.D.	N.D.	N.D.	N.D.	N.D.
비소	N.D.	N.D.	N.D.	N.D.	N.D.	3.92	N.D.
카드뮴	0.016	0.006	N.D.	0.003	0.009	0.025	N.D.
납	0.143	0.135	0.079	0.024	N.D.	0.088	0.087
알루미늄	N.D.	0.017	0.103	0.024	0.031	0.149	3.00

● 단위 : ppm(μg/ml) N.D.=검출한계이하(no det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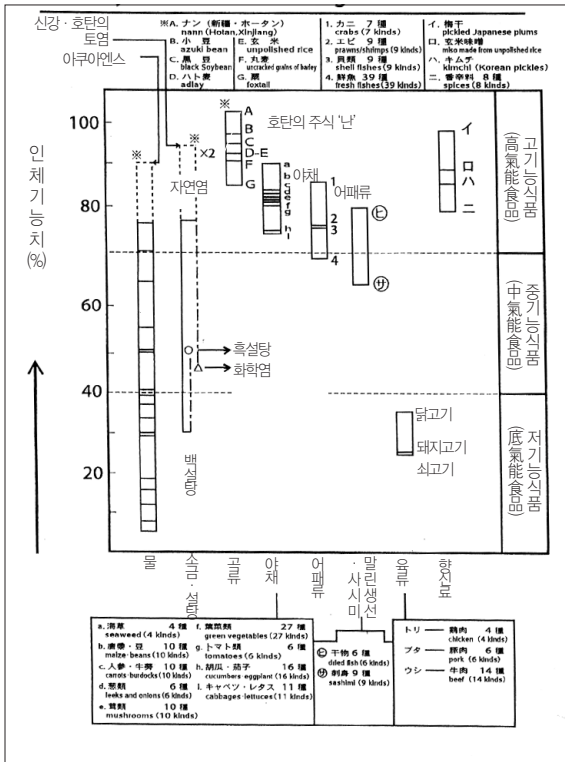
가져온 물질의 생명 에너지 파워입니다. 세계적인 장수촌인 호탄에서 가져온 이것은 <맨 왼쪽 막대가 동경(검정색A), 호탄(흰막대C)의> 강물입니다. 그 우측이 생활용수. 저희들에게는 농업용수와 같은 것입니다만 그들은 이것으로 밥을 짓곤 합니다. 다음이 소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깨끗한 소금은 없습니다. 흙과 이렇게 섞여져 있는 소금입니다만 그것을 물에 녹여 가지고 흙과 소금을 분리해서 그 소금물로 난이라고 하는 음식물을 만듭니다. 그 난에 소금물을 부어서 으깬니다. 그리고 맨 우측이 주식이 되는 난(M)입니다. 이것은 20점 만점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하는 차원에서 동경의 스미다강의 미네랄 성분만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오히려 중금속 등은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함유량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파워를 측정해 보니까 이 정도 <20점 만점에서 1.6>수치밖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경의 수도물, 이것은 장소가 다르지만 1.0도 있고 2.4짜리도 있습니다. 이 주위의 수도물의 생명 에너지 지수는 굉장히 낮죠. 이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소금입니다. 이것이(H) 일본의 전매청에서 발매하고 있는 식용 소금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자연염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연염을 쓰고 있죠. 일본에서는 99.9%가 화학염입니다. 그것으로는 안됩니다. 자연염은 두배 정도 생명 에너지 지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호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토염은 측정 한계를 넘는 위력입니다. 흙과 소금이 섞여진 이것은 밭에서 나옵니다. 땅만 파면 나옵니다. 그것을 물에 녹여서 소금물을 채취합니다. 그 소금물을 주식에 섞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먹고 있는 백미(검은 선)가 이것입니다. 9.0정도 됩니다.

난(M)은 이렇게 20이 넘죠. 그리고 현미를(L)



슬라이드 36-식료품과 인체기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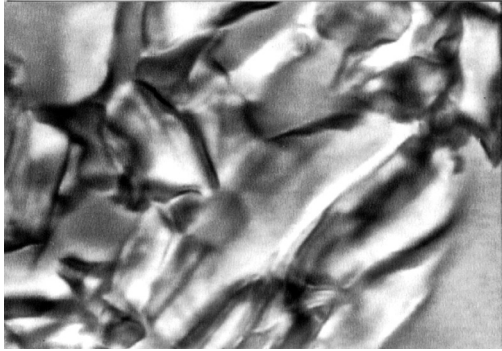


먹게 되면 꽤 이렇게(18.4) 높아집니다. 난에는 도달하지 못하지만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일본은 장수국이 아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혼자 강조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장수의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장수의 조건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십시오. 강물은 오염되고 수돗물도 오염되고 전매청이 발매하고 있는 소금도 에너지를 발산시키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미 대신 백미를 많이 먹습니다. 이런식이면 장수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 있는 이런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장수촌이 될 수 없습니다. 장수 왕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소 분석이 아니라 기 에너지를 측정함으로써 왜 그들이 장수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원인을 분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식생활습관 등이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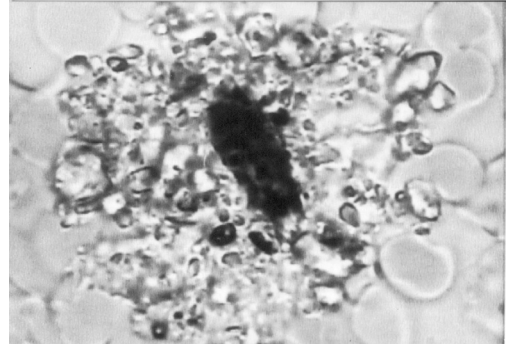
말씀을 드리자면 문명 선진국일수록 장수의 조건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명, 경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장수라는 측면에서 보면 개도국에 불과합니다. 좀더 말씀드리자면 일본은 경제 선진국인 미국, 유럽 각국에 비해 육류 소비량이 적기 때문에 그들 보다는 장수국일지 모릅니다만 그 정도에 그칩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일본이 장수국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최근 2~30년 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을 이 수치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36>이것이 음식물의 기능치(氣能値) 지수입니다. 물은 가치가 무한정으로 있지요. 물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0에서부터 100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백설탕입니다. 오른쪽은 흑설탕, 화학염은 요쪽에 있고 우리들이 주장해 온 자연염은 이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호탄에서부터 가져 온 토염은 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식은 100점 만점을 넘었습니다. 주식을 중심으로 식생활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전후 일본의 영양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부식을 많이 먹으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만 이것은 명확히 틀립니다. 이것은 야채죠. 이것은 생선. 태양빛에 쬐어서 말린 것은 높습니다. 고추라든지 김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수에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영양을 위해서 먹어야 한다는 육류들,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들은 저기능(底氣能) 식품입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사람들 중에 육류를 먹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수백명 정도 만나서 확인을 했습니다. 관혼상제 때만 육류를 먹고, 모든 사람들이 모일 때 약간씩 육류를 섭취하는 정도이고 일상 생활의 식습관에서 장수하는 사람들이 육류를 먹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미국, 유럽에서 추천받을 만한 식습관은 없습니다. 육류는 그렇게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 슬라이드 37



▲ 슬라이드 39

다시 말초혈액공간 이야기로 되돌아 가겠습니다. 말초혈액공간 속에 어떤 것들이 나오는가를 보려면 컷볼에서 채취한 혈액을 광학 현미경으로 보아 사진을 만든 것입니다. <슬라이드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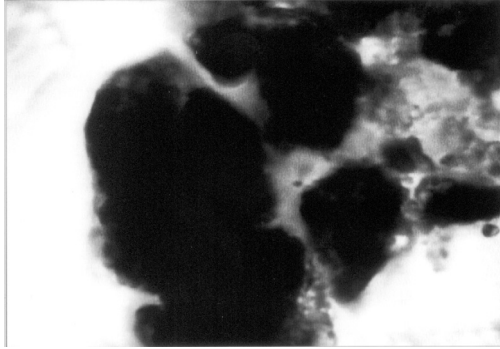
금속성으로 보입니다만 사실은 소장 과 회장(回腸)의 연막입니다. 금속적으로 광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폐기처분이 되어서 말초혈액속에서 나온 회장, 결장, 소장 과 회장 사이의 연막의 사진입니다. 폐기처분이 되어서 말초혈액공간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이 <슬라이드 38>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장, 회장과 결장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검색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氣能) 의학적인 검색을 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장과 결장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장부에서 그것만이 -기능치를 나타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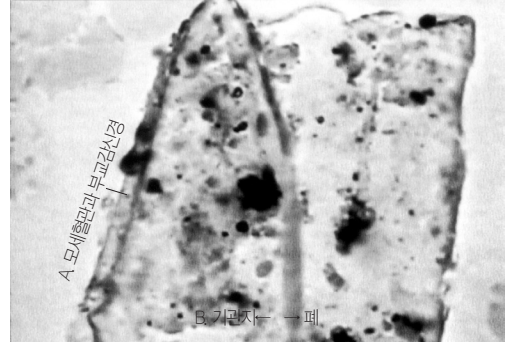
<슬라이드 39>도 굉장히 비슷한 것입니다. 다만 중간에 까만 것이 있습니다. 주로 탄소계 공해물,

슬라이드 38-혈액상성기능(血液相性氣能)테스트 모리시타 기능의학교실									
검사장소 : 타카오			날짜 : 1999. 7. 17			검사자 : T.J			
차트번호	이름	성별	병명						
99-5-40	○○○	여성	오견(五十肩)						
검사기종 : MRS					검사종별 : 혈액사진(78)				
1	03480	모세혈관	-7	16	06005	암	9		
2	05727	림프조직	14	17	06433	백혈병	10		
3	06832	적막염	-6	18	05249	담즙색소	-4		
4	04679	동물독소	7	19	06474	유황	5		
5	05713	항생물질	5	20	03875	동	6		
6	05185	용혈성연쇄구균	4	21	03361	인	-2		
7	06488	구강내연쇄구균	7	22	04410	철침착증	7		
8	06324	균혈증	-4	23	03042	기관지	4		
9	07077	효모균	-5	24	04996	폐	7		
10	05836	털곰팡이	5	25	03160	회장(回腸)	-2		
11	04714	저지방단백질	6	26	04913	결장	-3		
12	04825	저지방단백질	-5	27	05077	방광	4		
13	05018	고지방단백질	7	28	04333	노란	5		
14	06247	콜레스테롤혈증	-4	29	04459	탄소침착	-4		
15	05447	요산결정(尿酸結晶)	3	30	06432	연(담배)	8		

슬라이드 40-혈액상성기능(血液相性氣能)테스트 모리시타 기능의학교실									
검사장소 : 타카오			날짜 : 1999. 7. 17			검사자 : T.J			
차트번호	이름	성별	병명						
80-7-179	○○○	여성	좌관과농증·만성인두염						
검사기종 : MRS					검사종별 : 혈액사진(77)				
1	03480	모세혈관	-4	16	06005	암	7		
2	05727	림프조직	11	17	06433	백혈병	9		
3	06832	적막염	-10	18	05249	담즙색소	-6		
4	04679	동물독소	-5	19	06474	유황	-2		
5	05713	항생물질	-2	20	03875	동	-1		
6	05185	용혈성연쇄구균	-4	21	03361	인	-5		
7	06488	구강내연쇄구균	-5	22	04410	철침착증	-2		
8	06324	균혈증	-4	23	03042	기관지	-3		
9	07077	효모균	5	24	04996	폐	4		
10	05836	털곰팡이	-4	25	03160	회장(回腸)	2		
11	04714	저지방단백질	-2	26	04913	결장	-4		
12	04825	저지방단백질	-5	27	05077	방광	-1		
13	05018	고지방단백질	-2	28	04333	노란	-2		
14	06247	콜레스테롤혈증	-4	29	04459	탄소침착	-8		
15	05447	요산결정(尿酸結晶)	-3	30	06432	연(담배)	-3		



▲ 슬라이드 41



▲ 슬라이드 43

자동차 배기 가스를 마시게 되면 그것이 가끔 말초혈액공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담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주위에 있는 것은 주로 결장, 회장의 연막입니다. 그것이 혈액속에서 아까처럼 크게 보이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분해됩니다. 혈액속에서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는 것이죠.

이 수치<슬라이드 40>로부터 명확히 밝혀지는 것들입니다.

<슬라이드 41>은 담석, 담낭에 돌이 쌓이는거죠. 담석증 환자의 말초혈액공간입니다. 신체에 모든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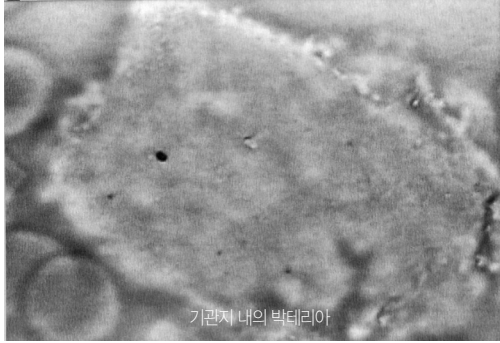
세포인 기관지, 폐, 소장, 회장, 결장, 방광, 요관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연막이 운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즙에 검은 색깔이 물들어 있다는 걸 이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드린 것은 <슬라이드 42>로써 밝혀지는데요. 기관지, 폐, 회장, 결장, 방광, 요관이 다 마이스죠, 그 안에 다 있다는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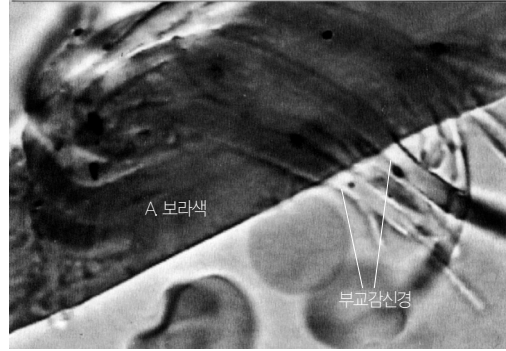
<슬라이드 43> 두 장이 여기 보이는데요. 비교적 새롭죠. 폐기처분 되어서 말초혈액 속에 나온 것인데요. 왼쪽에 있는 것이 기관지 연막이고 오른쪽이

슬라이드 42-혈액상성기능(血液相性氣能)테스트 모리시타 기능의학교실							
검사장소 : 타카오		날짜 : 1999. 7. 15		검사자 : T.J			
차트번호	이름	성별	병명				
99-5-40	○○○	여성	담석				
검사기종 : MFS			검사종별 : 혈액사진(72)				
1	03480	모세혈관	-7	16	06005	암	7
2	05727	림프조직	10	17	06433	백혈병	5
3	06832	적막염	-6	18	05249	담즙색소	-10
4	04679	동물독소	-7	19	06474	유황	-5
5	05713	항생물질	-5	20	03875	동	-4
6	05185	용혈성연쇄구균	-9	21	03361	인	-7
7	06488	구강내연쇄구균	2	22	04410	철침착증	-7
8	06324	균혈증	-10	23	03042	기관지	-2
9	07077	효모균	-3	24	04996	폐	-4
10	05836	탈곰팡이	-7	25	03160	회장(回腸)	-5
11	04714	저지방단백질	-10	26	04913	결장	-4
12	04825	저지방단백질	-5	27	05077	방광	-2
13	05018	고지방단백질	-5	28	04333	노란	-2
14	06247	콜레스테롤혈증	-9	29	04459	탄소침착	-11
15	05447	요산결정(尿酸結晶)	4	30	06432	연(담배)	-3

슬라이드44-혈액상성기능(血液相性氣能)테스트 모리시타 기능의학교실							
검사장소 : 타카오		날짜 : 1999. 7. 21		검사자 : T.J			
차트번호	이름	성별	병명				
99-5-40	○○○	남성	C형간염				
검사기종 : MFS			검사종별 : 혈액사진(87)				
1	03480	모세혈관	-4	16	06005	암	2
2	05727	림프조직	7	17	06433	백혈병	
3	06832	적막염	-10	18	05249	담즙색소	-5
4	04679	동물독소	-5	19	06474	유황	-3
5	05713	항생물질	-5	20	03875	동	-5
6	05185	용혈성연쇄구균	-4	21	03361	인	-4
7	06488	구강내연쇄구균	-2	22	04410	철침착증	-2
8	06324	균혈증	-3	23	03042	기관지	-7
9	07077	효모균	-5	24	04996	폐	-2
10	05836	탈곰팡이	-7	25	03160	회장(回腸)	4
11	04714	저지방단백질	-6	26	04913	결장	7
12	04825	저지방단백질	-5	27	05077	방광	5
13	05018	고지방단백질	3	28	04333	노란	9
14	06247	콜레스테롤혈증	-3	29	04459	탄소침착	-5
15	05447	요산결정(尿酸結晶)	-2	30	06432	연(담배)	-3
				31	04201	신경조직	-3



▲ 슬라이드 45-기관지 내의 박테리아



▲ 슬라이드 47

폐 연막입니다(B). 폐와 기관지 연막이죠. 여기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이 모세혈관과 부교감 신경이죠(A). 기관지, 폐가 다 더럽혀져 있죠. 이것은(검은 부분) 디젤 엔진의 폐가스의 미립자입니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반드시 나오는건데요. 다들 엄청난걸 안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숨기면 안되죠. 지금 말씀드린 것이 <슬라이드 44>를 통해서 분명히 수치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담즙, 색소, 기관지, 폐벽 -7, -2가 기관지, 폐의 수치입니다. 이 수치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슬라이드 45>는 기관지입니다. 기관지 안에 박테리아가 발생했습니다. 효모균이 주로 발생되서 박테리아를 발생시켰고 이것은 더이상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불 요하기도 해서 기관지로 배출되어 말초혈액 공간에 나타난 것입니다.

<슬라이드 46>을 통해서 알죠. 기관지만 마이 스킵. 나머지 폐, 회장, 결장 등은 다 정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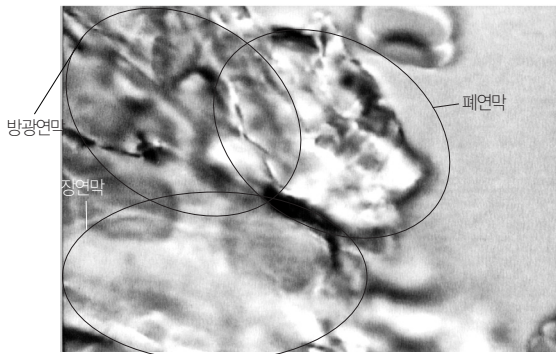
슬라이드 46-혈액상성기능(血液相性機能)테스트 모리시타 기능의학교실							
검사장소 : 타카오		날짜 : 1999. 7. 31		검사자 : T.J			
차트번호	이름	성별	병명				
96-6-71	000	여성	백내장				
검사기종 : MIRS			검사종별 : 혈액사진(94)				
1	03480	모세혈관	-7	16	06005	암	-2
2	05727	림프조직	8	17	06433	백혈병	
3	06832	적막염	-11	18	05249	담즙색소	-2
4	04679	동물독소	-7	19	06474	유황	5
5	05713	항생물질	-2	20	03875	동	4
6	05185	용혈성연쇄구균	-1	21	03361	인	-3
7	06488	구강내연쇄구균	-4	22	04410	철침착증	2
8	06324	균혈증	-7	23	03042	기관지	-6
9	07077	효모균	-10	24	04996	폐	5
10	05836	탈곰팡이	-4	25	03160	회장(回腸)	7
11	04714	저지방단백질	-5	26	04913	결장	9
12	04825	저지방단백질	-4	27	05077	방광	4
13	05018	고지방단백질	-1	28	04333	노란	5
14	06247	콜레스테롤혈증	-2	29	04459	탄소침착	-1
15	05447	요산결정(尿酸結晶)	4	30	06432	연(담배)	5
				31	04996	자궁	-3

슬라이드 48-혈액상성기능(血液相性機能)테스트 모리시타 기능의학교실							
검사장소 : 타카오		날짜 : 1999. 8. 27		검사자 : T.J			
차트번호	이름	성별	병명				
86-1-41	000	여성	천식				
검사기종 : MIRS			검사종별 : 혈액사진(130)				
1	03480	모세혈관	-2	19	06474	유황	-2
2	05727	림프조직	9	20	03875	동	5
3	06832	적막염	-7	21	03361	인	7
4	04679	동물독소	-2	22	04410	철침착증	8
5	05713	항생물질	7	23	03042	기관지	-7
6	05185	용혈성연쇄구균	9	24	04996	폐	5
7	06488	구강내연쇄구균	10	25	03160	회장(回腸)	10
8	06324	균혈증	-2	26	04913	결장	
9	07077	효모균	7	27	05077	방광	
10	05836	탈곰팡이	-4	28	04333	노란	
11	04714	저지방단백질	-2	29	04459	탄소침착	-5
12	04825	저지방단백질	-7	30	06432	연(담배)	4
13	05018	고지방단백질	5	31	04201	신경조직	-7
14	06247	콜레스테롤혈증	-1	32	03840	자궁신경	-6
15	05447	요산결정(尿酸結晶)	5	33	04141	교감신경	8
16	06005	암	10	34	04559	부교감신경	-8
17	06433	백혈병		35	04993	식도	9
18	05249	담즙색소	7	36	05026	직장	12

슬라이드 49-혈액상성기능(血液相性氣能)테스트 모리시타 기능의학교실							
검사장소 : 타카오		날짜 : 1999. 8. 27		검사자 : T.J			
차트번호	이름	성별	병명				
86-1-41	○○○	여성	천식				
검사항종 : MFS			검사항종별 : 혈액사진(130)				
1	06243	아연독	10	21	08074	나트륨독	6
2	05860	알루미늄독	9	22	06707	납	-4
3	03411	이리듐	9	23	03815	니켈	-2
4	04695	카드뮴 침전	10	24	06639	라듐화상	7
5	04858	칼슘 침전	14	25	03474	백금	8
6	07585	은독	10	26	03819	바나듐	8
7	03814	크롬	-11	27	04119	팔라듐	10
8	08058	비스독	-7	28	03410	바륨	-1
9	03354	게르마늄	9	29	03472	창연	-5
10	03297	코발트	8	30	03816	불소	7
11	05487	저지방단백질	-8	31	03932	플루토늄	8
12	03721	지르코늄	12	32	03586	붕소	-2
13	03931	수은	-3	33	03365	마그네슘	10
14	03765	스트론튬	-5	34	03817	망간	10
15	03970	세슘	7	35	03360	몰리브덴	5
16	03755	세륨	11	36	08118	요오드독	-9
17	03818	셀레늄	7	37	03847	라듐	4
18	03849	텅스텐	12	38	03473	리튬	5
19	03761	티타늄	-4	39	03361	인	7
20	06825	철독	7	40	03848	루비듐	7

부정적인 결과로써 나타나고 있죠. 다음 부탁합니다.

<슬라이드 47>은 천식 환자의 연막입니다. 주입기를 하고 있었죠. 기관지가 보라색으로(A) 변색했습니다. 보라색은 약을 복용한 영역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선상의 것이 흐르고 있는데요(B). 부교감 신경입니다. 기관지를 확장하기 위한 신경



▲ 슬라이드 50

슬라이드 51-혈액상성기능(血液相性氣能)테스트 모리시타 기능의학교실							
검사장소 : 타카오		날짜 : 1999. 7. 31		검사자 : T.J			
차트번호	이름	성별	병명				
95-11-55	○○○	여성	건강진단				
검사항종 : MFS			검사항종별 : 혈액사진(93)				
1	03480	모세혈관	4	16	06005		6
2	05727	림프조직	11	17	06433	백혈병	
3	06832	적막염	-14	18	05249	담즙색소	-2
4	04679	동물독소	-4	19	06474	유황	-4
5	05713	항생물질	2	20	03875	동	-2
	05185	용혈성연쇄구균	-2	21	03361	인	-6
7	06488	구강내연쇄구균	5	22	04410	철침착증	-2
8	06324	균혈증	-7	23	03042	기관지	-2
9	07077	효모균	-6	24	04996	폐	-4
10	05836	털곰팡이	-4	25	03160	회장(回腸)	-1
	04714	저지방단백질	-3	26	04913	결장	-3
	04825	저지방단백질	-2	27	05077	방광	-2
13	05018	고지방단백질	4	28	04333	노란	-4
		콜레스테롤혈증	-3	29	04459	탄소침착	-4
15	05447	요산결정(尿酸結晶)	-4	30	06432	연(담배)	2
				31	04996	자궁	-2

섬유를 이런식으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48>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을 알 수 있죠. 기관지가 -7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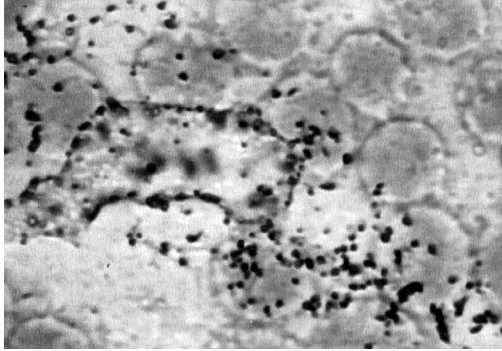
<슬라이드 49>는 보라색 색소가 원래 무엇인지 40가지 원소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알게 된 것은 크롬(-11), 요드(-9), 바륨(-1), 비소(-7), 그런 화학 약제로 인해서 기관지가 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원소를 알아내는데 이런 활용법도 있죠. 생화학적으로 하지 않아도 기능의학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판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50>은 세가지 장기로서 연막이 모이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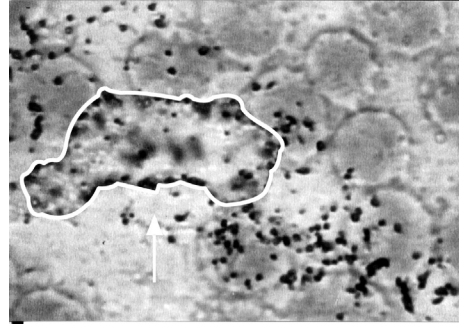
상.중.하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은 방광연막입니다. 중은 폐의 연막입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폐입니다. 그리고 아랫 부분은 장의 연막입니다. 특히 결장의 연막입니다.

<슬라이드 51>을 보면 이러한 검색으로써 알

슬라이드 54-점막의 종류판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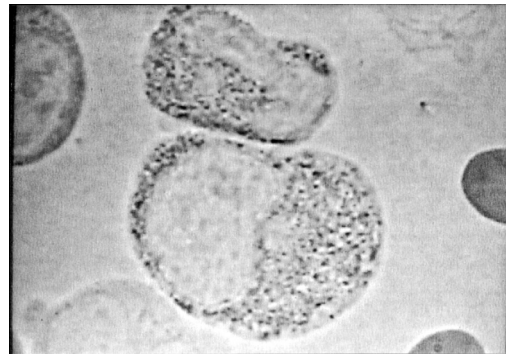


▲ 슬라이드 52



No. 97 부분축정치

①	04825	폐	-4
---	-------	---	----



▲ 슬라이드 55

슬라이드 53-혈액상성기능(血液相性氣能)테스트
모리시타 기능의학교실

검사장소 : 타카오		날짜 : 1999. 7. 31		검사자 : T.J			
치트번호	이름	성별	병명				
90-4-92	ooo	여성	유방암				
검사기종 : MFS			검사종별 : 혈액사진(97)				
1	03480	모세혈관	-7	16	06005	암	-5
2	05727	림프조직	12	17	06433	백혈병	-2
3	06832	적막염	-7	18	05249	담즙색소	-2
4	04679	동물독소	-2	19	06474	유황	3
5	05713	항생물질	-1	20	03875	동	4
6	05185	용혈성연쇄구균	4	21	03361	인	-2
7	06488	구강내연쇄구균	-2	22	04410	철침착증	4
8	06324	균혈증	-5	23	03042	기관지	-2
9	07077	효모균	-3	24	04996	폐	-5
10	05836	탈공팡이	-2	25	03160	회장(回腸)	5
11	04714	저지방단백질	-2	26	04913	결장	6
12	04825	저지방단백질	4	27	05077	방광	9
13	05018	고지방단백질	5	28	04333	노란	10
14	06247	콜레스테롤혈증	-4	29	04459	탄소침착	-5
15	05447	요산결정(尿酸結晶)	5	30	06432	연(담배)	-2

수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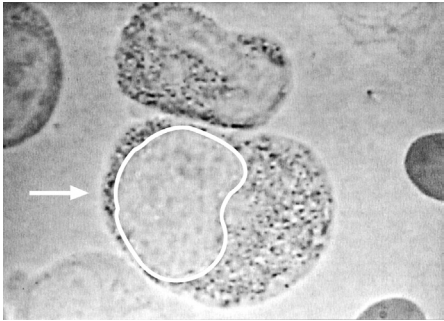
<슬라이드 52>는 아주 새까만 상태였는데요. 5~6시간 정도 경과를 해서 조사를 해보면 이와같이 따로따로 해체된 거예요. 이걸 디젤 가스의 폐기 가스고 공해 물질입니다(검은 부분). 이 부분이 무엇인가. 이 연막은 어느 부분인가 하는 것을 상상은 했었는데요. 폐 아니면 기관지일 수 밖에 없는데요. 확인 차원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슬라이드 53>을 보십시오. 폐(-5), 기관지(-2), 양쪽 다 가능성이 있겠죠. 이 부분만을 잘라내서

슬라이드 56-혈액상성기능(血液相性氣能)테스트
모리시타 기능의학교실

검사장소 : 타카오		날짜 : 1999. 7. 21		검사자 : T.J			
치트번호	이름	성별	병명				
96-9-49	ooo	남성	만성골수성백혈병				
검사기종 : MFS			검사종별 : 혈액사진(66)				
1	03480	모세혈관	-3	16	06005	암	-3
2	05727	림프조직	-10	17	06433	백혈병	-8
3	06832	적막염	-7	18	05249	담즙색소	-2
4	04679	동물독소	-6	19	06474	유황	5
5	05713	항생물질	-4	20	03875	동	5
6	05185	용혈성연쇄구균	-4	21	03361	인	-2
7	06488	구강내연쇄구균	-2	22	04410	철침착증	-1
8	06324	균혈증	-8	23	03042	기관지	9
9	07077	효모균	3	24	04996	폐	7
10	05836	탈공팡이	4	25	03160	회장(回腸)	-2
11	04714	저지방단백질	-2	26	04913	결장	4
12	04825	저지방단백질	-2	27	05077	방광	10
13	05018	고지방단백질	4	28	04333	노란	9
14	06247	콜레스테롤혈증	-3	29	04459	탄소침착	-3
15	05447	요산결정(尿酸結晶)	4	30	06432	연(담배)	2

슬라이드 57-점막의 종류판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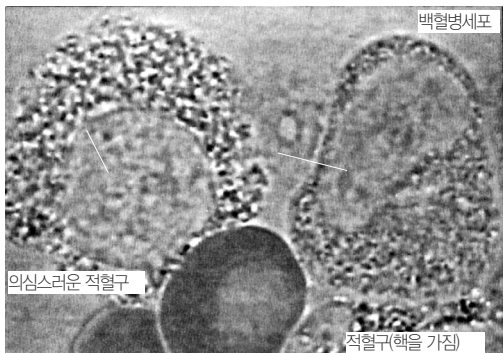
No. 66 부분측정치

종류	전체수치	측정치
기관지	+9	—
폐	+7	—
회장	-2	-4
결장	+4	—
방광	+10	—
뇨관	+9	—

조사를 해봤더니 역시 폐일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역시 폐라는 것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슬라이드 54>

<슬라이드 55>는 백혈병에 걸린 것입니다.
 전형적인 백혈병이지요.

핵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이죠. 이것은 무엇일까. 해서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백혈병이라는 것을 -8수치를 보고<슬라이드 56>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연막 조직으로써는 회장이죠. 여기서 좀 의심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연막들은 기관지, 폐, 결장인데, 회장만이 뭔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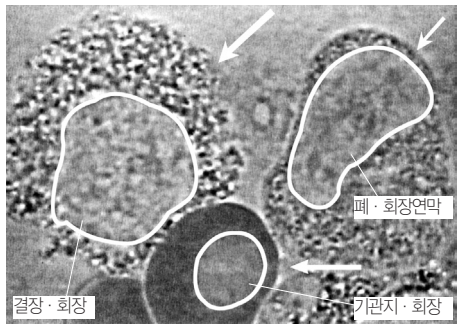
▲ 슬라이드 58

슬라이드59-혈액상성기능(血液相性氣能)테스트
 모리시타 기능의학교실

검사장소 : 타카오	날짜 : 1999. 8. 7	검사자 : T.J	
치트번호 96-9-49	이름 ooo	성별 남성	병명 만성골수성백혈병
검사기종 : MFS		검사종별 : 혈액사진(116)	

1	03480	모세혈관	-4	16	06005	암	-6
2	05727	림프조직	-10	17	06433	백혈병	-9
3	06832	적막염	-7	18	05249	담즙색소	-4
4	04679	동물독소	-4	19	06474	유황	-2
5	05713	항생물질	-5	20	03875	동	-3
6	05185	용혈성연쇄구균	-7	21	03361	인	-6
7	06488	구강내연쇄구균	-4	22	04410	철침착증	-2
8	06324	균혈증	-10	23	03042	기관지	-2
9	07077	효모균	-2	24	04996	폐	-2
10	05836	탈곰팡이	-7	25	03160	회장(回腸)	-6
11	04714	저지방단백질	-4	26	04913	결장	-2
12	04825	저지방단백질	-2	27	05077	방광	5
13	05018	고지방단백질	-5	28	04333	노란	-2
14	06247	콜레스테롤혈증	-6	29	04459	탄소침착	-5
15	05447	요산결정(尿酸結晶)	-2	30	06432	연(담배)	-2

슬라이드60-점막의 종류판별



No. 116 부분측정치

종류	전체수치	좌측위	좌측아래	아래
기관지	-2	+5	+6	-2
폐	-2	-2	+2	+4
회장	-6	-3	-5	-3
결장	-2	+4	-1	+3
방광	+5	—	—	—
뇨관	-2	+5	+4	-1

이 부분만을 잘라내서 조사를 <슬라이드 57> 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회장 연막(-4)입니다. 그 회장의 연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핵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회장의 연막이 핵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폐기 처분된 장의 연막이기 때문에 생리 기능은 없죠. 무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백혈병 세포속에 들어와서 핵으로써 언젠가 기능을 하게되는 것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58〉을 보시면 세가지 있습니다. 백혈병 세포인데요. 가운데 것은 적혈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핵이 생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것에 흥미가 있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말초혈액 안에서 발견한 백혈병 세포 세 개죠. 왼쪽 것도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이 적혈구도 의심스럽고 그리고 이 큰것(적혈구)은 이미 핵을 가지고 있고 우측 상단의 백혈병 세포가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핵 부분에 흥미를 갖고 조사를 진행시켜 봤습니다. 역시 확실히 백혈병 세포죠. -9로 나왔습니다.〈슬라이드 59〉

〈슬라이드 60〉60을 보시면 각각을 잘라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이것은 회장이죠. 폐 연막과 회장 연막입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 있는 이것은 결장과 회장인데 주로 회장이죠. 회장의 연막이라 할 수 있고 그 밑에 있는 이 부분은 기관지와 회장입니다. 그래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그러한 연막들이 세포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포를 무제한적으로 생성해 나가는 것이 암이라고 하는 두려운 대상이 되죠. 거기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모아서 그리고 세포화 시켜나가는 특성이 암세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것은 이것으로 마치구요. 시간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연의학 이론 중에는 오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디만 세계적인 장수국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장수하고 있는 사람들은 왜 장수하고 있느냐를 알고 있는 듯 하면서 사실은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러나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화학약제를 안씹니다. 수술도 하지 않습니다. 식이요법만 가지고 암과 만성병 치료를

30년동안 해 왔습니다. 그 임상 성적도 좋아,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식으로 하면 좋고 나쁜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아마 미내사의 〈지금여기〉를 통해서 소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능 의학에 관한 커다란 부분인데 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십년 전부터 해온 기능 지수를 정확한 데이터로 낸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4~5년 전까지만 해도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이쪽 저쪽으로 갔다가 상당히 잘못도 했고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요 몇 년전부터 정확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 드린 데이터에 관해서는 100% 자신감을 가지고 보고드릴 바 있습니다. 이 정확한 데이터를 미래 의학연구에 응용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의 아주 친한 친구 중 한 사람인 연세대 김현원 교수님이 새로운 기계를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빨리 성공해주셨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긴 시간에 걸쳐서 끝까지 경청해주시고 자리를 지켜주셔서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0년 10월 10일 MBC 'TV특강'에 출연하여
강연중인 모리시타 박사

■ 모리시다 케이이치 박사 약력

- 1950년 도쿄의대 졸업 후 혈액 생리학을 전공
1955년 지바(千葉)대학 의학부에서 의학박사 학위 수여
1957년 도쿄치대·생리학 조교수
1960년 「암퇴치」와 「장수」를 추구하는 자연의학의 기
이론(모리시다 이론)을 제창.
1970년 국제자연의학회, (사)생명과학회 및 「자연의학
클리닉」을 창설
1975년 「모리시다 세계장수촌조사단」을 설립하고,
실지조사를 개시
1984년 중국 신강 위구르를 「세계 제4의 장수촌」으로 인정
1986년 「코카사스-파미르고원-신강」의 북위 40도 벨트
지대를 「실크로드 장수촌」으로 명명
1991년 중국 파마(巴馬)를 「세계 제5의 장수촌」으로 인정
1992년 중국 광서장족·자치구 파마번족 장수촌에 대한
제2차 조사 실시, 해외 최초의 자연의학 국제심포지엄
(길림성과 공동 주최)을 중국 장춘에서 개최
1995년 중국 신강 위구르 자치구 장수촌 호탄에 대한
학술조사에서 일본 TV가 동행 취재
1997년 그루지아·앗시리아 자치공화국 장수 지역에 대한
학술조사에서 일본 TV가 동행 취재
현 국제자연의학회장 / 트빌리시(그루지아)
국립의과대학 명예교수